황석영의 5.18 도서에 대한 반론 (2) : 가짜 중 이광영이 헬기 사격 목격자라는 주장에 대한 반박

본 전자 소책자는 황석영의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 2017 년 판 '헬기 기총소사' 라는 소제목 하의 209~210 쪽 내용에 대한 공개 반론이다.

황석영, 이재의, 전용호는 가짜 중 이광영의 말을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근거로서 제시하였는데, 이것은 서울지방검찰청 · 국방부검찰부의 광주사태조사보고서 208 쪽에 위배된다.

본 소책자 다음 페이지부터 시작되는 자료는 김대령 저 신간 『문재인과 전두환의 5·18 역사전쟁』(The War of 5.18 History in South Korea: The War of 5.18 History between Moon Jae-in and Chun Doo Whan) 190~201 쪽에서 발췌한 것이다.

문재인과 전두환의 5·18 역사전쟁에서 황석영의 책에 대한 두번째 반론을 위한 책 구성은 다음과 같다.

문재인과 전두환의 5·18 역사전쟁
- 제 4 장 · 전두환과 문재인의 5·18 역사전쟁
  - 6. 문재인이 바로잡아야 할 5·18 기록
    - 나. 황석영의 가짜정보에 낚인 문재인
    - 다. 신동아 안영배 기자의 오보
    - 라. 사적지 순례 및 체험단의 허위설명
    - 마. 『正史 5 · 18』의 허위기록
    - 바. 월간조선의 5 · 18 보도 오류

위의 황석영의 책 인용문에서 5 월 27 일 새벽 도청 정문의 양 옆 담벽 아래 무장시민들이 배치되어 있었다는 내용은 사실이고, 무장시민들이 복도에 늘어서서 도청 바깥 무장시민들을 향해 사격하였다는 내용도 사실과 부합한다. 그러나 밖을 향해 사격하던 무장시민들 틈에 공수대원 두 사람이 슬그머니 끼어 들었다는 황석영의 문장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그 두 사람은 무장난동자들이 점거한 도청에서 각각 상황실장 직함을 사용하던 박남선과 조사부장 직함을 사용하던 신만식이었다.

이상은 소설가 황석영의 광주사태 도서에서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것들 중 극히 일부의 몇 가지 예이다. 황석영의 책에서 일부는 광주사태 주동자들이 무장폭동 상황을 기록한 일지에서 온 것으로서 참고할 만한 내용이 더러 있다. 그러나 누가 죽었다고 하는 문장이나 국군을 잔인한 살인기계로 묘사한 내용 등은 북한판 5 · 18 도서를 표절한 허구이다.

다. 신동아 안영배 기자의 오보

박금희 양의 사망원인에 대한 5·18 측 주장을 대변하는 것이 월간 신동아의 1996 년 1 월호 기사이다. 이 기사는 바로 전 달인 1995 년 12 월 김영삼 대통령이 대법원 법관들에게 12·12−5·18 특별법 제정을 부탁하자 급조되어 여론몰이 역할을 하였다는 점이 지난 2016 년 11 월 쏟아진 최순실 관련 가짜뉴스들과 비견된다.

이 기사 제목이 “계엄군 「시민사냥」 결정적 증거 찾았다"이다. 안영배 기자가 그의 특집기사 제목을 이렇게 붙였을 때 그는 박금희 양의 사망원인 및 가해자를 자기가 찾아내는 대발견을 하였다는 뜻으로 그렇게 붙였다. 이 기사는 안 기자의 호들갑스러운 대발견을 다음과 같이 보도한다:

> 당시 16살 춘태여고 3년생 박금희양도 계엄군의 총탄에 숨졌다. **5월21일 오후 2시 수미다실 앞에서 사망한 박양은** 오른쪽 등 가슴 부위에 총알을 맞았으며, 왼쪽과 오른쪽 허리 부분에 심한 타박상을 입은 것으로 기록돼 있다. 박양 역시 허리를 개머리판 혹은 곤봉으로 심하게 얻어맞은 후 등 뒤에서 쏜 총을 맞고 사망했는지, 그 거꾸로인지는 분명치 않다.

> 박금희양은 당시 기독병원에서 부상자를 위해 헌혈을 하고 귀가하던 중에 계엄군의 총에 맞은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헌혈등 부상자 구호활동을 위해 시내를 돌아다니던 **이광영씨는 5월21일 오후 6시경 양림동에서 헌혈을 하고 싶다는 여학생을 만나 기독병원으로 안내했다고 한다**.
>
> 『어떤 여학생이 헌혈을 하겠다고 졸라 기독병원으로 데려다 준 뒤 또다시 부상자 수송작업에 나섰다. 잠시 뒤 기독병원에 와 보니 많은 사람들이 웅성대며 울부짖고 있었다. 어느 여학생이 총탄을 맞아 즉사했다는 것이다. 시체를 확인해보니 조금 전에 내가 실어다 준 그 여학생이었다. 헌혈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다 공수부대의 총탄에 맞아 쓰러진 것이다. 내가 병원으로 실어다 주지 않았다면 그 여학생은 죽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에 지금도 괴롭다』(안영배 1996, 141-142).

안영배 기자는 박금희 양의 사망시간조차 확인해 보지 않았다. 광주기독병원이 1980 년 5 월 28 일에 발급한 사망진단서에는 박금희 양 사망 확인 시간이 14 시, 즉 오후 2 시로 기재되어 있다 (5 · 18 사료편찬위원회 2009, 24:617). 즉, 그녀는 오후 2 시 이전에 사망하였다. 안기자 본인도 방금 자기 입으로 박양이 "5 월 21 일 오후 2 시 수미다실 앞에서 사망하였다"고 말해 놓고 바로 그 다음 단락에서 이광영씨가 그녀를 오후 6 시경 양림동에서 만나 기독병원으로 안내했다고 보도한 것이다.

5·18 사기꾼들은 박금희 양의 헌혈에 대해서도 반복적으로 거짓말한다. 아직 휴교령이 내리기 전이었던 5 월 19 일에 춘태여상에서 단체 헌혈이 있었으며, 이것은 광주사태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통상적인 단체 헌혈이었다. 박양이 춘태여상 단체 헌혈에 참여한 날짜는 5 월 19 일이라는 것은 박양 부모가 명확하게 증언하는 사실이다 (박명민, 문귀덕 1988, 177).

안영배 기자는 "박양 역시 허리를 개머리판 혹은 곤봉으로 심하게 얻어맞은 후 등 뒤에서 쏜 총을 맞고 사망했는지, 그 거꾸로인지는 분명치 않다"는 표현으로 계엄군에게 또 하나의 누명을 씌운다 (안영배 1996, 141−142). 그러나 박양은 5 월 21 일 오후에 계엄군에게 맞기는커녕 계엄군 구경조차 한 적이 없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대동고등학교 1 년 후배인 유석의 증언에 따르면, 박양은 5 월 21 일 오후 1 시경 고등학생들에게 무기가 분배된 직후 발생한 고등학생 총기오발사고 희생자였다.

사실 안영배 기자의 기사 자체가 그 기사가 월간지에 실리기 직전에 발표된 검찰보고서 내용에 위배된다. 1988 년부터 여러 월간지 및 『正史 5·18』 등에 실렸던 이광영의 증언은 새빨간 거짓말인 것이 확인되었음을 검찰보고서는 이렇게 기록한다:

> 위 이광영은 5.21. 14: 00경 헬기 사격으로 15-6세의 女學生이 어깨 부위를 被擊 당하는 것을 목격하고 그를 적십자병원으로 후송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적십자병원의 당시 진료기록부와 응급실 관계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그 당시 헬기 사격 피해자가 來院 하였음을 확인할 수 없었고 (서울지방검찰청·국방부검찰부. 1995, 208).

지금 광주단체들이 전두환회고록 출판을 탄압하고, 2018 년 10 월 현재 광주법원이 전두환 전 대통령을 처벌하려고 하는 이유는 전두환회고록에 헬기 사격은 없었다는 위의 1995 년도 검찰보고서가 인용되어 있기 때문이다. 만약 헬기사격을 없앴다는 김영삼 정부 시절의 검찰보고서가 인용될 경우 저자가 처벌받아야 하는 것이라면 어째서 광주법원은 김영삼 정부 시절 헬기 사격이 없었다고 판단한 5 · 18 법관 전원을 처벌하지 않는가?

1995 년에도 광주단체들이 박금희 양 사망원인과 관련하여 전두환 전 대통령을 고소하기 위해 제출한 유일한 증거가 월간지 기사에 실린 이광영의 증언뿐이었다. 이광영은 입에서 나오는 대로 술술 광주괴담을 지어내었고, 마녀사냥하는 가짜정보로 장사하던 월간지들은 아무런 사실 확인 없이 이광영의 거짓말을 실었다. 그러나 검찰이 조사하였을 때는 아무리 그 목적이 전두환 피고를 엮으려는 의도가 있는 수사였다고 하더라도 이광영의 진술이 병원 기록으로 뒷받침이 안되어 헬기 사격 피해자는 아무도 없었음을 확정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검찰 발표 직후에 신동아는 “계엄군 「시민사냥」 결정적 증거 찾았다" 제하의 기사에 마치 새로운 발견을 한 양 이광영의 증언을 게재한 것이 우스꽝스럽지 않은가!

라. 사적지 순례 및 체험단의 허위설명

유은혜를 교육부장관에 임명하였으며, 5 · 18 정신을 강조하는 문재인이 박금희 양의 총상 부위를 규명해 주면 청소년 교육에 획기적인 도움이 될 것이다.

5 · 18 측 사람들은 고등학생들에게 무기를 분배하여 고등학생 총기오발 사고로 박금희 양을 사망케 한 것에 대한 반성이나 사과를 단 한번도 한 적이 없다. 사과나 반성은커녕 고등학생 총기오발사고의 누명을 애매한 국군에 뒤집어씌우기 위한 여러가지 거짓말들을 지어내었다.

<5 · 18 사적지 순례 및 체험단>은 박금희의 묘를 순례할 때 그녀의 사망원인을 이렇게 설명한다: "박금희님의 묘입니다, 5 월 21 일 집단발포로 인해 수많은 희생자가 속출, 피가 부족하여 당시 전남여상 3 학년의 학생으로 수혈하고 돌아오다 헬기에서 쏜 총에 머리와 배를 맞고 비명소리도 없이 쓰러지시고 영원히 일어나지 못하셨습니다."

5 · 18 사기꾼들은 박금희 양이 헬기에서 쏜 총에 머리를 맞았다고 가르치기 때문에 지금 문재인과 전두환의 5 · 18 역사전쟁에서 헬기 사격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는 피튀기는 쟁점이다. 헬기 사격이 없었으면 박금희 양이 헬기에서 쏜 총에 머리를 맞았다고 가르친 것이 거짓말이 된다. 이것이 지금 광주단체들이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주장을 결사적으로 입증하려 하는 이유이다.

자, 그런데 5 · 18 사기꾼들이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증거로 내놓은 것은 박금희 양 머리에 헬기에서 쏜 총상이 있다는 것인데, 그런 거짓말이 과연 얼마나 오래 진실을 지배할 수 있겠는가? 박양은 복부 관통상을 입었을 뿐 머리는 머리카락 하나 다치지 않았다

박양이 헬기에서 쏜 총에 머리를 맞았다는 <5 · 18 사적지 순례 및 체험단>의 설명은 위의 안영배 기자의 기사와도 맞지 않는다. 안 기자는 박양이 육군 총에 맞았다는 것이요, 체험단 기사는 헬기에서 공군이 쏜 총에 맞았다는 것이다.

사망진단서로 박금희 양의 사인은 복부관통상인 것이 간단히 확인되는데도 5 · 18 강사는 이런 간단한 확인도 안해 보고 학생들애게 거짓말을 가르치는 5 · 18 왜곡을 하는가? 박금희 양의 모친 문귀덕씨는

<5 · 18 사적지 순례 및 체험단>의 허튼 주장처럼 딸이 총에 맞은 부위는 머리가 아니라 하복부였음을 이렇게 증언한다:

> 틀림없는 금희였다. 나는 그대로 기절해 버렸고 뒤처리는 작은 사위가 했다. 작은 사위가 시체를 보니 하복부에 총알을 맞았는데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관통하여 오른쪽으로 창자가 흘러나와 있었다고 했다. 창자가 나와버린 배를 누군가가 웃옷을 벗어 감싸주었다 (박명민, 문귀덕 1988, 179).

안영배 기자에 따르면, "박양은 오른쪽 등가슴 부위에 총알을 맞았으며, 왼쪽과 오른쪽 허리 부분에 심한 타박상을 입은 것으로 기록돼 있다" (안영배 1996, 142). 그러나 동아일보 김영택 기자는 '복부 총상'이라고 기록하여 박양 모친의 증언과 일치한다 (김영택 1996, 445).

마. 『正史 5·18』의 허위기록

안영배 기자가 "계엄군 「시민사냥」 결정적 증거 찾았다"라는 제목의 특집기사를 1996 년도 1 월호 『신동아』에 기고하였을 때 그의 말뜻은 『正史 5 · 18』 341 쪽에 실린 이광영의 말에서 결정적 증거를 찾았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김준태 등이 기록한 이광영의 증언 자체가 허위기록이었다.

기독병원이 박금희 양의 사망을 확인한 시간은 5 월 21 일 오후 2 시였다. 그 날 오전부터 오후 2 시까지 이광영이 한 활동은 양동 복개상가 다리를 통과하는 무장공비 차량에 플래카드를 달아주거나 직접 페인트로 써주는 것이었으며, 그 이후에는 공비 차를 타고 광주교도소 인근까지 갔었음을 이광영은 1988 년에 이렇게 증언하였다:

> 그리고 복개상가 다리를 통과하는 모든 차량에게 미처 플래카드를 달아주지 못하자 차에다 직접 페인트로 써주기도 했는데 대기해 있는 차량이 1백여 대나 줄서 있는 것을 볼 때 우리의 사업은 성공적이라는 생각이 들어 마음이 뿌듯했다.

> 그때 적었던 구호는 '계엄을 철폐하라', '김대중을 석방하라', '언론자유 보장하라', '최후의 일각까지', '오호 통재라', '오후 3시까지 도청으로 집결' 등이었다.
>
> 거의 모든 차량에 직접 다 쓰고 나니까 오후 2시 정도 되었다. 도청 쪽에서는 총격전이 한창이었다. 남아 있는 대원정리를 해보니 모두 10명, 우리들은 늦은 점심을 먹으면서 이제부터는 무슨 일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얘기했다. 그러다가 우리는 일단 차를 타고 돌며 찾아보기로 하고 차에 탔다. 우리는 광주교도소 있는데까지 갔다가 한전 있는 쪽으로 왔는데 시내의 총격전으로 인해 곳곳에 차량들이 밀려 길이 막혀 있었다 (이광영 1988a).

박금희 양이 5 월 21 일 오후 한 시 반경 양림동에서 사망한 시간에 이광영은 남구 양림동이 아닌 서구 양동에서 프래카드 작업을 하고 있었으며, 그 후에 늦은 점심식사를 하였고, 그 후에 광주교도소까지 갔다가 한전 쪽으로 왔었을 때 붐비는 무장난동자 차량들로 인해 길이 막혀 있었다.

이렇듯 이광영은 박금희를 만난 적이 없음에도 1995 년에 김준태와 이재의 등이 집필한 『正史 5 · 18』 341 쪽에는 이렇게 엉터리로 기록되어 있다:

> 부상자 구호 활동을 위해 시내 전역을 돌던 이씨는 이날 오후 6시께 양림동에서 헌혈을 하고 싶다는 여학생을 만나 기독병원으로 안내한다.
>
> "중학생으로 보이는 여학생이 헌혈을 하겠다고 졸라 기독병원으로 데려다 준 뒤 또다시 부상자 수송작업에 나섰다. 잠시후 다시 기독병원에 와보니 많은 사람들이 웅성이며 울부짖고 있었다. 어느 여학생이 **머리에 정통으로** 총탄을 맞아 즉사했다는 것이다" (광주매일 『正史5·18』 특별취재반 1995, 341).

『正史 5 · 18』은 출처를 밝히지 않고 월간경향 1988 년 3 월호 139 쪽을 짧게 줄여 인용하였던 바, 그 원문은 이러하다:

> 그러나, 그 중에서 가장 잊을 수 없는, 지금도 내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는 하나의 사건이 있다. 오후 6시쯤일까. 헌혈된 피를 광주공원에서

> 수거하여 기독병원에 갖다주기 위해(당시 헌혈은 시내 각처에서 시민 자발적으로 행해졌는데 얼마나 그 호응이 좋았는지 병원마다 피는 부족하지 않았다) 양림동을 지나가는데 어느 중학생으로 보이는 여학생이 우리 차를 잡으며 "나도 헌혈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고 묻기에 어른들이 많이 한다며 매달리기에 어쩔 수없이 차에 태워서 기독병원에 데려다 주며 헌혈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
> 이어 우리들은 全大병원에서 병실이 부족한 관계로 미처 다 수용치 못한 응급환자들은 기독병원 등으로 분산 치료케 해 주는 일을 도왔다. 부상자를 싣고 기독병원에 도착하니 많은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잖은가. 웬일인가 싶어 가보니 어느 여학생이 머리에 정통으로 총을 맞아 즉사한 것이다. '아니!' 나는 깜짝놀라 다리를 휘청거렸다. 그 여학생은 조금전 내가 실어다 준 헌혈하겠다던 그 여학생이 아닌가. 그 학생은 헌혈을 마치고 걸어서 집으로 가다가 공수부대의 총탄에 쓰러졌던 것이다 (이광영 1988b, 139).

입에서 거짓말을 거침없이 쏟아내던 이광영은 박금희 양을 오후 6 시 이후에 자신이 기독병원으로 데려다 주었다고 하였으나 그런 주장은 그녀는 오후 2 시에 사망하였다는 기독병원 사망진단서 팩트 앞에서 여지없이 무너진다.

사실 이광영 본인이 시민군 총에 맞아 5 · 18 국가유공자가 되었다. 이광영의 증언에서 그가 시청 4 거리에서 무장괴한의 총에 허리를 맞고 영영 다시는 걸을 수 없게 된 시각이 오후 7 시였다. 그 여학생이 죽은 것을 보고 "깜짝 놀라 다리를 휘청거렸다"는 시간은 이광영 자신이 무장괴한 총에 맞아 이미 하체 불구자가 되어 있던 때였다. 이광영의 허위 증언이 월간경향 3 월호에 실린지 1 년도 채 안되는 1989 년 2 월 23 일의 광주청문회에서 그는 5 월 21 일 6 시 이후 어둑어둑할 때에 자신은 광주 양림동이 아니라 저 멀리 담양 쪽 교도소 앞 톨게이트 부근에 있었다고 실토하였다 (제 145 회 국회 청문회 1989, 29:18).

이광영은 그 날의 광주청문회에서 오후 7 시 이후에는 아무런 활동도 하지 않았다고 증언하였다 (제 145 회 국회 청문회 1989, 29:17). 바로 그 해의 5 · 18 증언록에서 그는 "광주교도소 있는 데까지 갔다가 한전 있는 쪽으로 왔는데" 시민군 차들이 너무 많아 길이 막혀 7 시가

지나서야 광주로 돌아올 수 있었다고 하였다. 이광영이 청문회에서 말하였듯이 "그때 그 시간은 [오후 7 시는] 이미 공수부대가 광주에서 철수한 지 한참 지난 시간이었다." 더구나 이광영 본인의 국회청문회 증언에서 그는 그 즈음에 시청사거리에서 무장괴한이 [시민군이] 쏜 총에 척추 중추신경을 맞은 환자로서 기독병원에 도착하였다 (제 145 회 국회 청문회 1989, 29:18−19).

그럼에도 광주매일 『正史 5 · 18』 특별취재반은 광주청문회 속기록과 비교도 해보지 않은 채 월간경향 1988 년 3 월호 139 쪽을 그대로 표절하여 『正史 5 · 18』 341 쪽에 수록하였다. 『신동아』 안영배 기자가 찾았다는 계엄군 시민사냥의 결정적 증거가 바로 『正史 5 · 18』 341 쪽에 수록된 이광영의 말이다.

당시 『신동아』는 5 · 18 측 주장에 유리한 기록을 만들기 위해 황적준 박사에게 사체검안서 및 사체 사진 감정을 의뢰하였지만 박금희 양이 입은 총상은 하복부 총상이었으며, 황적준 박사가 아무리 최대로 총상 부위를 올려도 가슴 위로 올릴 수는 없었다. 두부 총상은커녕 머리에 아무런 상처도 없었다.

『正史 5 · 18』 341 쪽은 마치 헬기가 기독병원 상공에서 병원 및 병원 인근을 향하여 사격하였으며, 헌혈을 방금 마친 여고생을 조준 사격하였던 것으로 사실 왜곡을 한다. 『신동아』 1996 년 1 월호 142 쪽은 출처를 밝히지 않고 『正史 5 · 18』 314 쪽을 그대로 베끼면서 다만 "머리에 정통으로"이란 문구만 슬쩍 빼버린다:

> 어떤 여학생이 헌혈을 하겠다고 졸라 기독병원으로 데려다 준 뒤 또다시 부상자 수송작업에 나섰다. 잠시 뒤 기독병원에 와 보니 많은 사람들이 웅성대며 울부짖고 있었다. 어느 여학생이 총탄을 맞아 즉사했다는 것이다 (안영배 1996, 142).

5 월 21 일에 박양은 헌혈한 적이 없으며, 오후 2 시 이전에 사망한 사람이 사망한 지 네 시간도 더 지나 헌혈하는 것은 불가능함에도 『신동아』 1996 년 1 월호는 "계엄군 시민사냥 결정적 증거 찾았다" 제하의 기사에서 이광영의 거짓말을 사실처럼 인용하였다.

바. 월간조선의 5·18 보도 오류

1985 년에 조갑제 기자를 단장으로 하는 月刊朝鮮특별취재반이 광주에서 이광영의 거짓말을 받아 적어 『월간조선』 1988 년 3 월호에 그대로 실었다. 여기 수록된 증언록에서는 이광영은 박금희 양의 사망사고 장소가 양림동이 아닌 백운동이며, 양림동 기독병원에서 헌혈한 후 총에 맞은 것이 아니라, 백운동에서 맞았으며, 헬기에서 총을 쏘는 것을 자기가 보았다고 거짓말하였다.

> 이 플래카드는 광고구실도 했다. 「전 도민은 오후 3시에 도청으로 집결하자」「도청을 탈환하자」등등의 글귀로 썼다. 나는 생각나는 대로 10～15가지의 구호를 써갈겼다. 오후 2시까지 미친 듯 그 작업을 했다.
>
> 온몸은 페인트투성이가 됐다. 나는 오후 2시쯤 2명이 타고 있는 지프차에 합승, 도청쪽으로 향했다. 백운동 로터리를 지날 때 군용 헬기에서 총을 쏘는 게 보였다. 여학생이 인도에서 어깨에 총을 맞고 쓰러져 있었다. 우리는 그 여학생을 차에 태우고 기독병원으로 달려갔다.
>
> 병원은 밀려온 환자들로 난장판이었다. 의사들은 응급용인 하트만 링겔이 모자란다고 아우성이었다. 나는 여기서 「할일」을 찾았다고 생각했다. 적십자 활동을 하자고 시민들을 설득했다. 한꺼번에 수십 명이 자원했다.
>
> 『군대에 갔다 온 분들만 나오십시오』 15～16명의 자원자 가운데서 내가 3명을 지명했다. 우리 지프에 타고 있던 3명을 합해서 6명의 적십자 자원 봉사팀이 생긴 것이었다. 우리는 적십자 병원에서 의사 가운, 적십자 마크, 완장 등을 얻어 팔뚝에 차고 또 지프에도 붙였다 (月刊 朝鮮 특별취재반 1988, 463).

이광영은 자기가 5 월 21 일 적십자대를 창설하였다고 하지만 정말로 그가 적십자대를 창설하였는지의 여부를 『월간조선』은 전혀 확인해 보지 않았다. 광주는 이광영에게 연고자 없는 객지였고, 그 날이 그가 광주 시내를 본 첫 날이었는데 어떻게 적십자 부대를 창설할 수 있었다는 말인가? 아래 51 번 사진에서 의사가운을 입고 지프차를 타고 있는 난동자들은 의사들이 아니다. 그들은 적십자 병원에서 의사들의 가운을 강탈하여 착용하였다.

사진 51 ▲ 무장괴한들이 군용지프 범퍼 위에 가톨릭병원에서 강탈한 적십자 마크를 부착하여 만든 적십자대 차 사진에서 운전석 쪽의 철모 쓴 자는 무장공비 기관총 사수로서 현재 북한에 거주하고 있는 인물임이 확인되었다. The militia wearing a soldier's helmet inn the fake vehicle of the Red Cross. has been proved to be a North Korean soldier.

『월간조선』 1988 년 3 월호에서 이광영이 "어떤 여고생이 헌혈하겠다고 해서 기독병원까지 태워다 주었다. 몇 시간 뒤 다른 차가 시체를 하나 싣고 가는데 우리가 얼마 전에 태워다 주었던 바로 그 여학생이었다" 고 하였다. 몇 시간 뒤란 적어도 세 시간 뒤를 일컫는다. 같은 달 『월간경향』 139 쪽에서에서 이광영은 동일 여고생을 여중생이라 부르며 양림동에서 그녀를 기독병원으로 태워다 준 시각이 오후 6 시 이후라고 하였다. 그 후 전남대병원으로 가 그 병원 환자들을 시내 각 병원에 분산 입원시킨 후 부상자를 싣고 기독병원에 다시 오니 그 여학생이 죽어 있었다고 하였다. 그런데 같은 페이지와 그 다음 페이지에서 그는 자기가 그 시각에 정반대 방향으로, 즉 기독병원에서 광주천변도로를 지나 시청 4 거리로 이동한 것이었다고 횡설수설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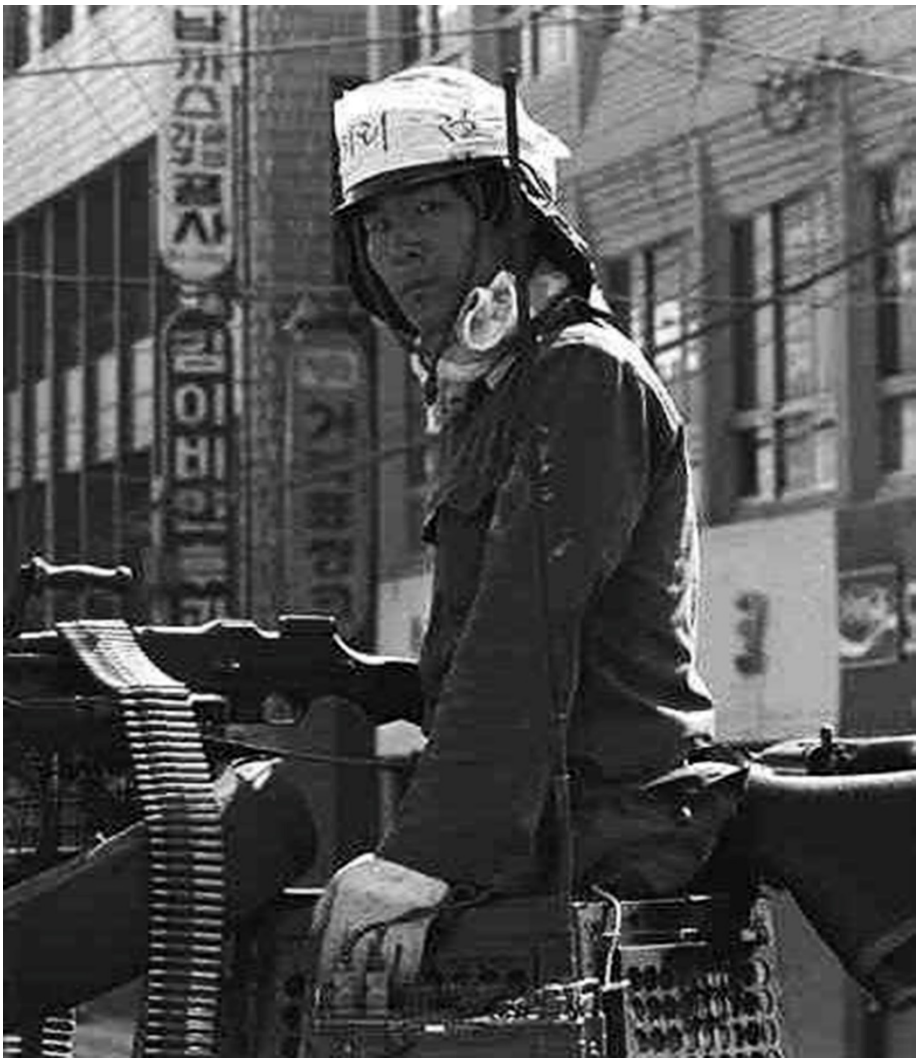

사진 52 ▲ 위 사진의 무장공비 기관총 사수가 광주 의사로 보이는가? 그는 5 월 21 일 오전에는 적십자병원 의사들에게서 강탈한 의사 가운을 입고 지프차 타고 다녔다. A Kwangju militia from North Korea armed with his machine gun.

이광영은 국회 청문회에서는 전남대 병원의 환자들을 다른 곳으로 분산 수용한 적은 없고 환자 한 명을 싣고 기독병원에 갔더니 병원 앞에 박 양이 죽어 있었다고 했다 (제 145 회 국회 청문회 1989, 29:17). 이광영의 말은 심지어 국회청문회 도중에도 바뀌었다. 그가 그 날 기독병원에 가게 된 경위에 대해 그렇게 말해 놓고서도 입에서 침이 마르기도 전에 말이 확 바뀌어 저녁 6 시에 교도소 앞에 도착하였다가

저녁 7 시에 기독병원에 도착하였고, 그 후에는 시청 4 거리로 갔다가 무장단체가 쏘는 총에 척추를 맞은 채로 기독병원으로 차를 몰고 온 것이라고 하였다 (제 145 회 국회 청문회 1989, 29:18-19).

이렇듯 1988 년 3 월 양대 월간지에 크게 실린 이광영의 증언은 실제로는 증언이 아니라, 매번 그의 입에서 다르게 횡설수설하며 쏟아져 나온 광주괴담 작품이었다.

사. 국제적 사기 친 '5.18 시민법정 기소장'

<5.18 시민법정 추진위원회>는 2002 년 5 월 14 일에 (1) 제임스 카터, 1980. 5. 당시 미국대통령(James Earl Carter, Jr., 39th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2) 윌리엄 글라이스틴, 당시 주한미국대사(William H. Gleysteen, U.S. Ambassador to Republic of Korea), (3) 존 아담스 위컴, 당시 주한미군사령관, 유엔군사령관, 한미연합사령관, 미 8 군 사령관(John Adams Wickham, Jr. Commander in Chief of United Nations Command and Combined Forces Command and Commander of United States Forces, Korea Eighth United States Army). 및 (4) 헤럴드 브라운, 당시 미 국방장관(Harold Brown, Secretary of Defense) 등 8 인의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내란목적살인죄 혐의로 기소하는 '5.18 시민법정 기소장'을 발행하였다.

이 기소장에서 실명이 언급된 광주시민 희생자는 박금희 양이다. 이 기소장은 박양 사망 원인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한다: "16:00 광주로부터 철수 명령을 받은 공수부대 중 11 여단 병력은 17:50 경 화순군 주남마을 일대로 철수하던 도중 마을 주민들에게 총기를 난사하여 헌혈을 마치고 돌아가던 박금희(여고생) 등 수명을 살상하였다."

그런데 광주단체들이 이 기소장을 발행하였을 때 국제사기단처럼 하였다. 주남마을 총기사건 피해자 이름에서 박금희 이름이 왜 나오는가? 주남마을에서 무장시민 총기난사 사건이 발생한 날짜는 5 월 23 일 오후였고, 박금희 양 사망사건은 그보다 이틀 먼저인 5 월 21 일이다.

본 소책자 출처는 『문재인과 전두환의 5·18 역사전쟁』입니다.

The War of 5.18 History in South Korea

The War of 5·18 History between Moon Jae-in and Chun Doo Whan

Daeryeong Kim